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도내 집단 감염 여파... 연일 확진자 발생 “특별방역 조치 시행해야”

도 재난안전본부, 시·군 부단체장과 긴급대책회의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해 도내 집단 합숙훈련 금지 집단감염 주요 발생처 전수점검·방역 참여 등 주문

전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송하진 도지사)는 18일 시·군 부단체장과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설명절 대비 특별방역 조치를 시행해 줄 것을 요구했다.

최근 도내 제조업체, 체육부 합숙훈련, 어린이집 등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의 여파로 연일 확진자가 연일 100명을 상회하고 있고, n차 감염이 계속되고 있다. 집단 감염 중 대다수가 와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상 감염 고리 차단이 쉽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는 오미크론 변이가 공기 중 전염이 쉽고, 백신접종 완료자도 돌파 감염이 이뤄지며, 무증상 감염자도 많아 검사를 소홀히 하고 있어서다.

실제, 1월 3주차(1월 9일~15일) 확진자 765명 중 488명(63.8%)이 오미크론 변이와 연관성이 있다고 방역부서

는 밝혔다.

대책본부는 이러한 상황에서 설 명절 고향 방문객이 늘고 이동량이 늘어 나면, 확산세가 가파르게 증가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도 전체부서 및 시·군에 위기감을 가지고 강력한 대응책을 펴줄 것을 주문했다.

주요 요구사항으로는 ▲도내 집단 합숙훈련 전면 금지, ▲집단감염 주요 발생처 전수점검 실시, ▲방역관리자 재교육 및 책임감 제고, ▲기초단체부터 자발적 방역 참여 운동 실시 등이다.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마스크를 쓰기 어려운 체육활동이나 공동식사가 이뤄지는 합숙활동 간 전파가 쉽게 이뤄질 수 있다고 보고,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도내 대학교 종교시설, 대안학교 등을 대상으로 합숙활동을 중단 또는 금지해 달라고 전 시·군에 요청했다.

또한, 현재 제조업체, 목욕업소, 어린이집 등 주요 집단감염 발생업소에 대해서 방역관리자 지정, 방역수칙 준수, 주기적 검사 실시 등 정부 지침 준수 여부에 대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전수 점검을 실시할 것을 관계부서 및 시·군에 지시했다.

그리고 기관, 사업장 사회복지 시설, 사무실 등 방역관리자 지정 대상 시설에 대해서는 주기적 환기·소독, 마스크 착용 점검 등 방역관리자 역할에 대해 설명하고, 책임감을 제고할 수 있도록 시설 점검 시 교육도 병행해 줄 것을 시·군에 요청했다.

아울러, 오미크론 대응책은 개인 마스크 착용이 최고이자 최선의 방법이라 보고, '가까운 사이라도 대화할 때는 마스크 착용' 등 기본방역 수칙 준수가 지켜질 수 있도록 반상회, 주민자치회 등 읍면동 기초단체부터 방역수칙 준수 참여 운동을 전개해 줄 것을 부탁했다.

송하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이번 설은 방문 자체가 설 선물이다"며 "마스크 쓰기 같은 기본수칙부터 철저히 지켜 오미크론 변이 위기에 대응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유호상 기자

‘전북자존시대’ 역사·문화가 책임진다

전북도 문화체육관광국, 4대 목표 23개 과제 제시 ‘도민 일상 풍요’ 문화예술 활성화·‘안심’ 여행환경 조성 ‘위드 코로나 부합’ 체육생태계 회복·문화유산 가치 확산

전년비 올 예산 증액, 코로나로 위축된 문화체육관광 지원
2023 전북 아태마스터스 성공개최 준비 추진에 역량 집중

문화예술관광분야 활성화를 통해 전북자존의 시대를 선도하는 역사·문화 가치 창출에 온 힘을 쏟겠다.

전북도가 19일 코로나19로 지친 도민들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넓혀 빠른 일상회복을 응원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기로 했다.

도 문화체육관광국은 이날 '문화'를 통한 일상회복, 문화로 피어나는 여행·체험 1번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4대 목표와 23개의 주요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정책목표로는 ▲도민의 일상을 풍요롭게 하는 문화예술 활성화, ▲안심하고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여행 환경 조성, ▲위드 코로나 시대에 부합하는 체육생태계 회복, ▲전북자존의 시대,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의 가치향유와 확산으로 4가지를 채택했다.

또한, 코로나 이후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는 관광트렌드에 발맞추어 대한민국 여행체험 1번지 실현 등 7대 추진전략과 청정안전 전북여

행, 전방위 국내외 관광마케팅 전개 등 23개 세부 실행과제 로드맵을 마련,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도는 특히, 올 한해 문화체육관광 분야 주요업무의 초점을 코로나19로 달라진 여행 트렌드 반영, 역사문화의 전북의 정체성 확립, 문화체육시설 확충과 공연활성화로 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 2023 전북아태마스터스 성공개최 준비 추진에 맞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2022년 예산은 지난해 보다 10% 증가한 3,730억원을 편성해 지난 2년간 계속된 코로나 19로 인해 크게 위축돼 있는 문화체육관광 분야를 지원하고, 도민들이 빠르게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위기극복을 위해 집중 지원한다.

세부적으로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 1인 80만원의 예술인 민생안정지원금 32억을 설명절 전에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예술단체 문화역량강화

및 도민의 고른 문화향유를 위한 주요공모사업으로 12개 사업, 54억원의 공모사업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 여행업계에도 80만원씩 지급하며, 관광업계 지원 기준을 완화해 침체된 관광산업 활성화와 관광객유치 여행사 인센티브(20명 → 8명) 및 소규모 개별여행 지원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체육분야에서는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의 인지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홍보 사업을 추진해 대회개최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각종 대회 및 전시훈련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문화기반시설 분야에서는 핵심 속원사업인 세계서예비엔날레관 건립, 전라유화진흥원 건립이 계획대로 추진된다.

이와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문화예술관광 콘텐츠 확충에 차질 없도록 집행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문화관광분야 국책사업을 추가 발굴 및 구체화를 통해 미래성장을 견인할 계획이다.

운동목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코로나19로 올해 상반기에도 문화체육관광분야가 크게 위축이 예상되는 만큼 도민들이 문화예술을 통해 위로를 얻고, 예술·체육인들이 일상을 회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걸프협력회의 사무총장과 접견
문재인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영빈관 접견실에서 나예프 알하즈리프 걸프협력회의(GCC) 사무총장을 접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하천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km²,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슬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

전북도, 생생마을 활성화 109억원 투자

마을만들기 12개 사업 50억·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59억원

전북도가 생생마을 만들기 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 2대 분야 17개 핵심과제에 109억 원을 투자한다고 19일 밝혔다.

도는 올 한해 생생마을 100개를 조성해 원과 휴식의 공간 행복농촌, 살고 싶은 농촌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마을 특성을 살린 특화마을(치유 농촌관광, 귀농귀촌 등)을 중점 육성하고, 마을 공동체 미디어 활동 및 마을 콘텐츠 발굴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할 계획이다.

생생마을 만들기 단계별(기초 활성화, 지립화) 지원을 통해 생생마을 100개소(2021년까지 1,083개소)를 조성할 계획이다.

도농융합상생 협력사업인 '생생마을

신규 사업으로 역점 추진한다.

또한, 마을 공동체 사업을 지원하는 시·군 중간지원조직(2021년 11개소 → 2022년 13개소)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특히, 중간지원조직을 활용한 마을 공동체 미디어 활동 및 마을 콘텐츠 발굴을 역점 추진할 계획이다.

신원식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지난해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등 그간의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다"며 "올해도 현장과 지속적인 소통 등으로 더불어 함께 사는 농촌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코로나19 백신 접종, 나와 내 가족을 위한 일입니다